

“나눔 실천은 큰 행복... 꾸준히 동참할 것”

㈜한빛산업개발 우상호 회장 전남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한빛산업개발 우상호(왼쪽 다섯번째) 회장이 1억 원 기부금을 완납하며 제137호 전남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다.

5일 전남 사랑의열매는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한빛산업개발에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전남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우 회장은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했던 때 수재민을 위한 벽지를 제공하고 화순군 노인복지센터에 승합차량을 기부했다. 또 설날을 맞이해 장성군 저소득세대에 백미를 지원했으며 지난해 희망 2022 나눔캠페인에서는 5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취약계층 돕기에 앞장서고 있다.

우상호 ㈜한빛산업개발 회장은 “나눔을 실천하고 나면 더 큰 행복감이 따른다”며 “무엇보다 기부하는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나눔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노동일 전남 사랑의열매 회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나눔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아너 소사이어티는 ‘개인 고객 기부자 클럽’으로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5년 이내 1억 원 기부를 약정할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산수1동 새마을부녀회, 돌봄 이웃에 ‘사랑의 반찬 나눔’



광주 동구 산수1동 새마을부녀회는 최근 동구 돌봄 이웃 100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산수1동 새마을부녀회 제공)

광주시·광주문화재단 ‘기업과 예술의 만남’ 행사 성료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최근 개최한 ‘기업과 예술의 만남’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2022 광주형 문화메세나 ‘3대 문화동행(시민문화동행, 기업문화동행, 함께문화동행)’ 중 ‘기업문화동행’으로서 기부 및 잠재적 기부 기업인들을 초청해 광주문화 메세나 활동을 기념하고 기부 참여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행사는 광주를 대표하는 기업가동자, 광주은행, 광주신세계백화점, 삼성전자 광주공장, 금호타이어 등 광주지역의 70개 기업이 참석했다. 기부참여로 감사패를 받은 기업은 엠에스엘(주) 김해명 대표, 영무TG 박현택 대표, 고운연합의원

윤인산 원장, 열린세무법인 이병욱 세무사, 우주씨푸드 조용환 대표, ㈜에스아시아 이성국 대표, ㈜동원 임흥섭 대표 등이다.

이날 행사에는 감사패 전달식 뿐 아니라 ‘ESG 경영과 메세나’를 주제로 심준식 한국능률협회 컨설턴트 공공혁신부 단택터 컨설턴트가 ESG경영에 메세나가 필요한 이유를 강연해 기업의 큰 역할을 이끌어 냈다. 기부금매칭지원에 선정된 김상연 작가의 사례발표와 퓨전음악 불랑의 아름다운 공연이 함께 펼쳐져 기업과 예술이 만나서 아름다운 성장을 하는 것에 참석자들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 가졌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유학생 학업·정착지원...아시아문화장학재단, 조선대에 장학금 1000만원 전달

아시아문화장학재단이 최근 조선대학교에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5일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장학재단(이사장 김명근)은 최근 유학생들의 학업지원 및 정착을 위해 조선대에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민영돈 조선대 총장과 김명근 아시아문화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영돈 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 일정이 진행되지 못하고, 전국민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준비해주시는 김명근 이사장에게 감사사를 표한다”며 “유학생들이 양국가의 미래인재가 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근 이사장은 “이 장학금이 우리지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에게 유학생생활을 격려하고 학업의지를 고취시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많은 경험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명근 아시아문화장학재단 이사장은 1억원 이상 기부자 모인인 광주 아너소사이어티 제83호 회원이며, 주식회사 금호주목을 경영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현재 주한 몽골 명예영사,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 부회장,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상임위원, 법무부 한마음장학재단 이사,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TV프로그램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비밀의 집(재)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내 눈에 콩깍지(재)	30 930 MBC 뉴스 40 기분 좋은 날	55 광주광역시의회 시정질의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꾸러기 식사교실(재)	
11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황금가면 스페셜	15 반짝이는 프리채널3 45 한글날 주간 특집 쉬운 우리말 극장	
12	00 KBS 뉴스 12	45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5 영상앨범 산(재)	00 12 MBC 뉴스 20 금주저(재)	00SBS 12 뉴스 1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0 천원짜리 변호사(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5 리스업(재)	50 2시 뉴스 외전	00 광주광역시의회 시정질의
2	00 KBS 뉴스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방과 후 초능력			
3	00 브레드 이발소 3 15 신비파트 고스트블즈 귀도토포사 45 다이노 파워즈	00 KBS 뉴스타임 10 반짝반짝 캐치 티니핑(재)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시사간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생방송 현장 리포트(날)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스페셜	00 뽀뽀뽀 포크가족 15 니니 뭐하니?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50 통합뉴스룸 ET	10 보통의 존재	00 SBS 오뉴스 50 아마도 시우루스 2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보낼보 보자	20 민선8기, 시장 군수에게 듣는다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황금가면	05 생방송 영공복권 720+ 10 비밀의 집 40 MBC 뉴스데스크	20 KBC뉴스와이드 50 SBS 8 뉴스
8	30 내 눈에 콩깍지	30 흥동전 외전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50 진검승부	00 다큐 M	00 공생의 법칙 2
10	00 다큐 인사이트 -더 컬렉션- 인왕제색 50 더 라이브		00 심야괴담회	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30 KBS 뉴스라인	05 연중 플러스	20 문화콘서트 난장	
12	10 예설의 전당(재)	10 아이 러브 스포츠 35 통합뉴스룸 ET(재)	30 광주MBC 보드 스페셜 5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나이트라인 30 상상! 고향별곡(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들레길(재)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5:3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재)	17:30 시용
05:5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5 한자로 통하는 삼국지(재)
06:10 세계테마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	18:00 생방송 워터지 해결단
07:00 꼬마버스 타요	12:00 EBS 뉴스 12	19:00 비스트 오브 아시아2
07:15 하프와 친구들	12:10 EBS 교육진단	19:30 한국의 들레길
07:45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13:00 당신의 활력충전소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재)
08:00 당동명 유치원	13:50 명의(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20 미니극공대 브이레인저스	14: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칠레에서 세계 일주>
08:35 한글용사 아이야	15:35 꾸러기 천사들	21:30 한국기행
08:50 고고다노 우리동네공룡(재)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고향 숨은 보물찾기>
09:05 최고! 호기심딱지	16:15 페파 피그	21:50 이것이 야생이다 3
09:20 EBS 친구들 생생	16:25 한글용사 아이야(재)	22:45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
09:30 어떻게 만들까	16:40 당동명 유치원(재)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메인즈
09:40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23:55 클래스 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6일(음9월11일 壬辰)

<p>36년생 시세와 국량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야 할 때가 되었으니라. 48년생 돌봄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60년생 부담 갖지 않아도 될 것이다. 72년생 점점 복잡한 단계로 접어들다. 84년생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의외의 행운으로 이어진다. 96년생 일의 선후를 정한 다음에 중점 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 행운의 숫자 : 07, 82</p>	<p>42년생 가장 근본적인 면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54년생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으니 최선을 잘 해야겠다. 66년생 즉시 조치했을 때 부작용을 줄인다. 78년생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실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 90년생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개되리라. 02년생 수습의 국면으로 접어들다. 행운의 숫자 : 49, 53</p>
<p>37년생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새롭게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다. 49년생 부단한 노력이 확실한 미래를 담보하는 지경에 이른다. 61년생 판도를 좌우할 만한 결정적인 방도가 절실하다. 73년생 옛 인연을 소중히 여김이 바람직하다. 85년생 기본 소식이 메아리쳐 올 것이니라. 97년생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라. 행운의 숫자 : 31, 74</p>	<p>43년생 기저우역의 이치에 의해서 양지가 움직이 되고 움직이 양지로 바뀌리라. 55년생 매우 궁금에 왔던 것이 방백히 드러나서 속 시원하겠다. 67년생 앞방이는 잃고 겁대기만 남아 있는 양태이다. 79년생 추후라도 만마음을 먹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91년생 단정 짓기에는 애매한 요소들이 있다. 03년생 관찰다. 행운의 숫자 : 15, 79</p>
<p>38년생 마음의 여유를 가졌을 때야 보일 것이다. 50년생 절대 무리가 따르지 않아야 한다. 62년생 지나치다면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다. 74년생 겉은 화려하나 속은 비어 있으니 실속을 차려야 함지이다. 86년생 전체적으로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느니라. 98년생 어른이 사라지면서 밝은 햇살이 가까이 다가온다. 행운의 숫자 : 10, 73</p>	<p>44년생 평 대신 닭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 56년생 진중하게 기다려야 이루어지는 법이다. 68년생 여유를 갖고 세밀하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80년생 환심을 사기 위한 제스처에 미혹되면 곤란하다. 92년생 주변의 소리에 귀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04년생 무리하다 보면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30, 57</p>
<p>39년생 주체성을 가지고 임한다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51년생 비웃은 모습이라고 해서 전처럼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일 뿐이다. 63년생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리라. 75년생 배려하는 마음이 생산적인 관계로 이끌 것이다. 87년생 임한다면 오히려 소신만 나겠다. 99년생 문제가 발생하리라. 행운의 숫자 : 13, 72</p>	<p>33년생 말조성을 하지 않는다면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 45년생 근본적인 것을 파악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57년생 조짐이 보이면 진행 방향을 수정해도 좋다. 69년생 동선이 예측 불허하니 어디로 될지 모를 일이다. 81년생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자. 93년생 적응하다 보면 극복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0, 83</p>
<p>40년생 현장 감각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니 실무에 능해야 한다. 52년생 활로를 개척하는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니 기탄없이 수용하라. 64년생 배려에 힘입어 풍성함을 누리는데 운로이다. 76년생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88년생 예상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00년생 위험 요소가 많이 드러난다. 행운의 숫자 : 25, 62</p>	<p>34년생 빛 받고 나선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46년생 일상에 충실하다 보면 특별한 이익이 있을 것이다. 58년생 손시가 황금과 같으니 시간을 아껴 쓰자. 70년생 작은 조치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82년생 원래의 목적을 잃어 버려서는 아니 된다. 94년생 방도를 세우지 않으면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2, 80</p>
<p>41년생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진다. 53년생 설계를 잘해야 구조물이 제대로 지어지는 법이다. 65년생 안심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77년생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니 당장 실행하라. 89년생 대단한 일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 01년생 생산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17, 93</p>	<p>35년생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며 물러가고 있는 형상이다. 47년생 어떠한 유혹을 한다고 하더라도 듣고 참고만 하는 것이 현명하다. 59년생 기회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니라. 71년생 미세한 부분을 세밀하게 고찰해야 한다. 83년생 행령성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95년생 지나치다면 부작용만 못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23, 52</p>